

# 여수지역 재래 민가(在來 民家) 가구(架構) 구성의 공통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mon Form of Timber Framework of Folk House in Yeosu City

박 찬\*                      渡邊 昌浩\*\*                      金 貞 均\*\*\*  
Park, Chan              Watanabe, Masahiro              Kim, Jeong-Gyun

### Abstract

This paper overall and systematically investigates of basic design know-how on commonly indwelling timber framework in a folk house in Yeosu area. in other words, Setting the goal of 'investigates of common form of timber framework', and for this goal, surveyed and analyzed for folk house a lot of findable in Yeosu area. As a result, elicits for four types plural common form(① 4 front 'kan' - a hipped roof construction - front 'toi'/3 'ryang' - no central pillar/side beam type, ② 4 front 'kan' - a hipped roof construction - front 'toi'/3 'ryang' - one side central pillar/central side beam type, ③ 4 front 'kan' - a hipped roof construction - front/back 'toi'/2'kozu'5'ryang' - no central pillar/side beam type, ④ 4 front 'kan' - a hipped roof construction - front/back 'toi'/2kozu'5'ryang' - one side central pillar/central side beam type). Common form is at that time, so commonly located in the head of the technician that a form that play an exemplary role in design, or it is concretely assumed for commonly aimed form. in other words, Common form is come into existence on premise for basic design data. Documentation of folk house design know-how is done through this, and the base design and specification of korean private house is written in the contents divided into by areas.

주 요 어 : 여수, 민가, 가구구성, 공통형, 기초설계자료

Keywords : Yeosu City, Folk House, Framework, Common Form, Basic Data of Architectural Design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남해안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수의 재래 민가가 현존한다. 그 중에서 여수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민가들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차 멸실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실상(양태)을 규명하고자 한다. 건물의 실상에는 여러 부분이 포함되는데 본고에서는 건물의 골조를 이루는 가구(架構)의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여수 지역의 재래 민가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에 관한(가구 치수는 제외) 기초적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기초적인 데이터라 함은 설계의 입장에서 작성된 데이터, 곧 설계를 전제로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간략하게 '기초설계자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설계의 입장에서 가구 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규명하고

자 함은, 우선 그것이 데이터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설계자료는 일반적으로 보다 발전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할 때 응용의 기준(출발선)이 되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여수 지역의 재래 민가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가구 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설계자료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여기에는 민가 가구 구성의 보편적인 형태가 구체적이고 간명하게 파악될 뿐만 아니라, 민가의 설계노하우의 일부가 문서화(문자화)되며, 한국민가의 영조규범의 일부가 지역별 세분된 내용으로 작성되는 의미가 있다.

#### 1.2 연구의 방법

본고에서는 민가의 가구 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설계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공통형'을 설정한다. 공통형이란, 어의적으로는 다수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당시 기술자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아 설계의 본보기의 역할을 하는 형, 또는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형을 구체적으로 상징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공통형은 기초설계자료를 전제로 해서 성립하는 형태임과 동시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부분의 합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형을 의미한다. 표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밖에 일반형, 대표형, 기본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desig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an@jnu.ac.kr)

\*\* 건축사사무소 이음, 공학석사

\*\*\* 나루토교육대학 대학원 학교교육연구과 교수, 공학박사

본 연구의 일부는 JSPS 科學研究費(課題番号26420607)의 조성을 받아서 수행되었음

형, 전형, 정형 등과 같이 부분적으로 개념을 공유하는 용어가 적지 않지만, 본고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고려할 때 공통형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

공통형을 찾아내는 방법은 가구 구성을 각 부분별로 나누고, 나누어진 각 부분 별로 공통적인 형식을 가려내어 그것을 다시 재구성(재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체의 가구 구성을 각 부분으로 나누고(부분구성), ② 각 부분구성에 대한 형식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사례가 많은 형식을 부분공통구성(형식)으로 하고, ③ 각 부분공통구성을 총합함으로써 전체의 공통구성을 재구축한다. 이때, 가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지 않고 각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공통형이 건물 단위로(특정한 사례로) 존재하기 보다는 여러 사례에 걸쳐서 부분의 합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정한 사례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은, 본래 설계 데이터가 여러 방면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민가의 경우 각각 건립배경을 달리하면서 개별적인 계획하에 건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부분구성은 기본적으로 설계와 조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도면(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양시도 등)작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부분공통구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반수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을 선정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이하의 점유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30%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분공통구성은 복수로 선정될 수 있고, 전체의 공통구성 역시 복수로 도출될 수도 있다.

### 1.3 연구의 범위

여수지역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비슷한 양식의 민가가 건립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다수가 현존한다. 즉 본고에서 말하는 ‘재래 민가(在來 民家)’란, 여수지역에서 이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구체적으로 1960년대까지 지어진 민가 중에서 재래의 재료와 공법으로 건립된 민가를 지칭한다. 이 시기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가 시작되기 이전, 또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의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민가에는 개항이전의 전통민가, 근대기의 민가 그리고 해방이후에 재래방식으로 건립된 민가가 모두 포함되는데, 사전조사 결과 이들 간에는 외관상 특히 가구의 구성에서 양식의 항상성이 확인되고, 더구나 이들 간의 시기적 분기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 민가의 건립시기가 폭넓으면, 이들 민가를 총칭하기에 적절한 용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민가’는 주로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고(조성기<sup>1)</sup> 등), ‘근대기(의) 민가’ 또는 ‘근대민가(미성립 용어)는, 일단 근대기를 개항에서 해방

까지로 잡는다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본고의 대상민가의 범주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재래 민가’라는 용어를 채용하여, 대상으로 하는 민가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로서 그 적합성을 높이고자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므로 재래와 민가를 띄어서 표기하고 검색성을 고려하여 키워드로는 ‘민가(Folk House)를 채용한다.

한편 보다 좁은 시기로 나누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별 차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한다. 좁은 시기별로는 사례수가 적어져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든 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것이 본고의 논점을 벗어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속성상, 유형 연구 등과 같이 차이점과 분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지향한다.



Fig. 1. Investigation area

조사지역은 여수반도 전역으로, 행정구역상 여수시에서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 전역이다(최근 연육교로 연결된 돌산도와 백야도 제외). 여기에는 7개의 읍·면·동에 총 135개의 마을이 포함되는데, 이 마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민가를 선정한다. 곧 전체의 마을을 답사하여 먼저 건립시기와 그 밖의 선정기준에 의하여(후술) 연구대상이 되는 민가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고, 각각 조사가 가능한 민가인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조사민가를 확정한다(1차 조사). 조사결과 연구대상민가가 존재하는 마을은 56마을에, 가옥수는 총141가옥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조사가 가능한 민가(조사민가)는 104가옥으로 집계되었다<Table 1>. 대부분 19세기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1960년대까지 건립된 서민주택이다.

1)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아카데미, 2006, 서울

Table 1. Investigation private house

가옥(지번)	건립년도	칸수	퇴 구성	기본가구 형식
하사리 431	1961년	4	전후	2고주5량
하사리 433	1943년	4	전후	2고주5량
하사리 436	1962년 이전	5	전후	2고주5량
하사리 439	미상	4	전후	2고주5량
하사리 466	1940년 이전	3	전	3량
하사리 489	1936년 이전	4	전	3량
상내리 179	1946년경	5	전후좌	2고주5량
상내리 230	1916년경	5	전후우	기타
상내리 231	1960년대	4	전	1고주5량
취적리 1347	1960년대	4	전후	2고주5량
월산리 537-2	미상	4	전후	2고주5량
월산리 538-2	1966년 이전	4	전후	반7량변형
월산리 1142	미상	4	전	1고주5량
월산리 1151	1906년경	6	전후	2고주5량
월산리 1191-2	1940년대	4	전후	2고주5량
가장리 246	1926년	5	전후우	2고주5량
가장리 248	1940년 이전	5	전후	2고주5량
가장리 727-8	1944년	4	전후	2고주5량
가장리 109-3	1949년 이전	3	전	3량
가장리 127	1950년대	4	전후	2고주5량
가장리 134-1	미상	5	전후	2고주5량
가장리 135-1	1870년대	5	전후좌우	2고주5량
가장리 173-1	미상	4	전후	2고주5량
가장리 1679	미상	4	전후우	2고주5량
가장리 1727	미상	5	전	반5량
가장리 424-2	1940년대	5	전후	2고주5량
상봉리 721-1	1966년경	4	전후	반7량변형
봉전리 573-2	1944년 이전	3	전후좌우	2고주5량
봉전리 629	1950년대	4	전후	2고주5량
봉전리 640	1951년	4	전후	2고주5량
반월리 157-1	1960년대	4	전	3량
반월리 518	1950년대	4	전후	2고주5량
반월리 662-1	1916년경	5	전후	2고주5량
반월리 664	1940년대	4	전후	2고주5량
사곡리 147-7	1936년경	4	전	1고주5량
사곡리 171-2	미상	4	전후	2고주5량
사곡리 180	1938년	4	전후	2고주5량
사곡리 184	1916년 이전	4	전후	2고주5량
사곡리 448-2	1960년대	3	전 <sup>1)</sup>	3량
복산리 1699	1940년	4	전후	2고주5량
복산리 1734	1950년대	4	전후	2고주5량
복산리 1775-8	1951년경	5	전후	2고주5량
복산리 1785	1950년대	4	전	3량
복산리 1183	1965년경	5	전	3량
복산리 1201-2	1896년경	4	전	3량
복산리 1217	1936년경	4	전후	2고주5량
복산리 1224	1948년	4	전후	2고주5량
현천리 1000-1	1965년경	3	전	3량
현천리 1012	1964년	4	전	3량
현천리1035-15	1955년	4	전	3량
현천리 464	미상	4	전	3량
현천리 484	1942년	4	전후	2고주5량
관기리 430-4	1946년 이전	3	전	3량 <sup>2)</sup>
관기리1003-13	1949년 이전	4	전후	2고주5량
관기리 904-3	1940년대	4	전후	2고주5량

관기리 918	1955년 이전	4	전	3량
관기리 925-2	1953년	4	전후	기타
호명동 603	1740년경	4	전우	3량
호명동 611	1950년	5	전후	2고주5량
호명동 619	1870년대	5	전후좌	기타
호명동 634	1959년	4	전	3량
호명동 산12	미상	3	전	3량
호명동 1270	1942년	5	전후	2고주5량
호명동산186-3	1932년	4	전	3량
상암동 1161-6	미상	3	전	3량
상암동 1285-2	1958년	4	전	3량
상암동 1733	1931년	3	전	3량
상암동 1761	1955년	4	전	3량
상암동 707-1	1930년대	4	전	3량
신덕동 178-2	1944년	4	전후	2고주5량
옥적리 120	1956년	4	전후	2고주5량
옥적리 648	1963년	5	전	3량
옥적리 792	1916년 이전	3	전	3량
옥적리 793	1947년	4	전후	2고주5량
옥적리 902	1950년경	4	전	1고주5량
옥적리 952	1926년 이전	5	전후	2고주5량
옥적리 968	1945년 이전	4	전후	기타
옥적리 969	1945년 이전	4	전후	2고주5량
옥적리 1221	1822년	4	전	3량
옥적리 1681-1	1950년	5 <sup>3)</sup>	전후	2고주5량
화동리 772	미상	4	전	3량
화동리 835	미상	4	전	3량
화동리 838	미상	4	전	3량
화동리 896-2	1929년	5	전후	2고주5량
화동리 1464-1	1906년	4	전	3량
화동리 1145-2	1931년	5	전후	기타
화동리 1187	1895년	3	전	3량
화동리 1254	1949년	4	전	3량
장수리 550	미상	4	전	3량
장수리 559-1	1955년	4	전후우 <sup>4)</sup>	2고주5량
장수리 972	미상	3	전	3량
안포리 800	1916년경	3	전	3량
안포리 1317	1946년경	4	전후	2고주5량
안포리 1523	미상	3	전	3량
창무리 568	1944년 이전	4	전	3량
이목리 67-3	연대미상	5	전	3량
이목리 68-1	1950년	4	전	3량
이목리 572	1929년	5	전	3량
이목리 574	미상	4	전	3량
이목리 1006-1	1926년	4	전	3량
이목리 1593-3	미상	4	전	3량
서촌리 491	1935년	4	전	3량
서촌리 506	1936년	4	전	3량
서촌리 643	1951년	4	전	3량

1) 사곡리 448-2 가옥은 부엌칸만 후퇴. \* 칸수: 정면칸수

2) 관기리 430-4 가옥은 내주와 평주의 높이차이가 있으나, 그 수치가 작고(70mm) 내주도리에 서까래가 걸치지 않기 때문에 내주를 평주로 봄.

3) 옥적리 1681-1 가옥은 우측 최측면 가구가 재래의 양식과 다름. 불완전한 칸.

4) 장수리 559-1 가옥 방3우측의 창고는 증축된 것으로 보이며, 가구구성상(방3의 우측내주가 고주, 추녀가 걸린 위치) 증축 이전에는 우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

연구대상민가가 소재하는 마을은 <Fig. 1>과 같다<sup>2)</sup>. 연구대상민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도시화지역 및 공업단지지역이다.

2차 조사는 각 가옥별로 실측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세밀히 실시한다(단 본고에서 치수는 제외). 다만 본연구가 도면에 의한 기록화작업이 목표가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조사표(양식)를 작성하여 사용한다(계재 생략). 조사표는, 도면에 의한 기록화작업에 버금가는 데이터를 모두 담아야 하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효율적인 양식을 강구해서 사용한다. 조사는 2015년 2월 - 2016년 9월에 이루어졌다. 이후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단계에서 미비한 점이나 확인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를 수행하였다(3차 조사)

연구대상 민가선정 기준) 1) 원칙적으로 가구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일부 개변된 경우라도,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3) 증축부는 제외하고 판단 등이다. 그리고 조사 불가능한 사유는 거주자의 부재 또는 연락 두절, 조사 불허, 가옥으로의 접근 불능 등이다.

#### 1.4 기존연구

기존연구 중에서 주제나 방법적으로 본 연구에 선행하는 연구는 없다. 민가의 평면, 입면, 단면을 아우르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고와 같이 민가의 3차원적인 구성(가구구성)에 대해서 기초적인 설계자료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연구는 없었다. 박 찬의 연구<sup>3)</sup>가 연구방법을 공유할 뿐이다.

### 2. 부분구성의 선정 및 조사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분구성(조사항목)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설계와 조사에 있어서 사용되는 기본도면 작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본도면의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망라할 수 없으므로, 주요한 요소, 즉 필요최소한의 요소라는 관점에서 항목을 선정한다. <Table 2>는 이렇게 하여 선정된 부분구성(조사항목)이다.

여기서 실내기둥의 생략이란 흔히 대청이나 부엌에서 커다란 공간을 얻기 위해서 실내의 기둥을 생략하는 경우로서, 대개 인접하는 2칸(또는 1.5칸) 사이기둥을 생략하여 정면2칸을 통간으로 한다. 측면중앙기둥이란 최측면 기둥열에서 귀주를 제외한 사이기둥이 정중앙에 한 개만

Table 2. Partial composition of frame(Investigation item and form)

항목		부분구성(형식)	
평면구성	평면형	‘一’자형 등	
	기본기둥	칸수 <sup>1)</sup>	정면: 3칸 / 4칸 / 5칸 등 측면: 1칸 등
		배열	퇴구성 전 / 후 / 좌 / 우 퇴
	실내기둥생략	부엌 기둥 생략 / 생략 없음	
	측면중앙기둥	한쪽 / 양쪽 / 없음	
지붕평면구성	서까래/추녀의 배열	우진각구성 / 팔각구성 등	
	귀서까래 배열	선자서까래/말굽서까래/절충형 등	
중단면구성	기본가구	3량(3평주)/2고주5량/1고주5량 등	
	퇴보연결	수평 / 경사	
	서까래 구성	장연 / 장연과 단연	
횡단면구성 <sup>2)</sup>	측면부분의 가구(3D)	퇴보(측보)형식 / 중앙퇴보(측보)형식	
기둥머리결구	평주결구	민도리 / 단장여수장 / 장여수장	
	고주결구	/ 소로수장	
기타세부구성	중대공	동자주 / 없음	
	중대공	동자주 / 판대공 등	
	처마 구성	홀처마 / 겹처마	

1) 칸수는 퇴를 제외한 몸체만의 칸수.

2) 횡단면구성은 측면부분의 가구형식을 3차원으로 파악한다.

배열되는 방식이다. 지붕평면구성이란 지붕가구의 평면상(투영된) 구성으로, 평면도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다. 형식은 서까래와 추녀가 평면상에 배열되는 형식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가는 우진각구성과 팔각구성으로 양분된다. 보통 이 두 구성은 지붕형태로는 우진각지붕과 팔각지붕으로 각각 대응되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고, 특히 본고에서는 가구구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지붕형태와)구분하였다. 지붕형태는 참고로 조사한다. 횡단면구성은 횡단면도 대신에 측면가구부분의 구성을 3차원으로 나타내어 사용한다. 횡단면도는 양시도와 함께 하여 측면가구부분의 구성(3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주요한 도면이긴 하지만 대개 정보전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차원 도법인, 그것도 일부 밖에 나타낼 수 없는 횡단면도 대신에 3차원의 도법(3D 가구 모식도)을 통해서 파악한다. 이외에 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3. 부분공통구성의 추출’에서 함께 서술한다.

이상과 같은 조사항목을 토대로 부분구성(형식)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집계하면 <Table 4>, <Table 5>와 같

Table 3. The first judgement of partial common construction

항목	부분구성	항목	부분구성
평면형	‘一’자형 <sup>1)</sup>	측면칸수	1칸 <sup>2)</sup>
실내기둥 생략	생략없음 (생략:1사례)	서까래/추녀 배열	우진각구성(맞배:1사례)
퇴보연결	수평(경사:4, 혼용:8사례)	서까래구성	장연(단연과 장연:1사례)
중대공	동자주	중대공	동자주

\* 전체 104사례 1) ‘一’/‘ㄷ’자형:각1사례 2) 겹집:4사례, 양통집:1사례

2) 단, 순천시 해룡면의 하사리와 상내리 일부는 지형/지리상 여수시와 구분이 어려우므로 조사지역에 포함한다. 섬달천 마을은 섬이지만 육지의 달천마을과 지근거리이고 썰물 때는 육지로 연결되어 일찍부터 동일 생활권을 형성해왔으므로 포함한다.

3) 박 찬, 전남지방 전통주택 가구 구성의 공통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14권 6호(통권 52호), 2012, pp.153-162

은 결과를 얻는다. 다만 조사결과, 부분구성의 형식이 전 사례에서 거의 하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계표에 게재를 생략하고 <Table 3>과 같이 별도로 정리한다(부분공통구성에 해당: 1차 판정). 예를 들면, 평면형은 ‘-’자형 평면의 홑집 이외에 ‘ㄱ’자형/과 ‘ㄷ’자형 평면의 사례가 있고. 측면칸수도 겹집, 양통집 등의 사례의 경우에는 1칸 이상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모두 사례수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분공통구성이 아니다.

Table 4. Aggregate of investigation result 01

평면구성		지붕평면구성					
정면칸수	퇴의 구성	측면중앙기둥	귀서까래 배열				
3칸	14	전퇴	50	한쪽	46	선자서까래	2
4칸	67	전우퇴	1	양쪽	16	말굽서까래	35
5칸	22	전후퇴	45	없음	41	절충형	33
6칸	1	전후좌퇴	2				
		전후우퇴	4				
		전후좌우퇴	2				
합계	104	합계	104	합계	103	합계	70

\* 사례 수 합계가 104미만인 경우는 개변 및 천장 설치, 접근불가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포함.

Table 5. Aggregate of investigation result 02

중단면구성	횡단면구성 <sup>1)</sup>	기둥머리결구 <sup>2)</sup>	기타세부구성				
기본가구형식	측면보의 형식	평주-고주 <sup>3)</sup>	처마형식				
3량	46	퇴보형식	1	민-민	30	홀처마	72
1고주5량	4	측보형식	37	단-민	5	겹처마	28
반5량	1	중앙퇴보형식	2	장-민	53		
2고주5량	46	중앙측보형식	25	장-장	9		
반7량변형	2	없음	5	소-민	1		
기타	5			소-장	1		
				익-장	1		
합계	104	합계	70	합계	100	합계	100

\* 사례 수 합계가 104미만인 경우는 개변 및 천장 설치, 접근불가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포함

1) 횡단면구성은 부엌 쪽만 조사. 부엌 반대쪽은 대부분 방으로 천장으로 가려져 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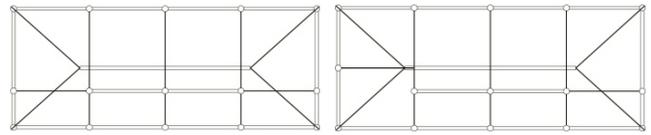
2) 전면 기둥열 기준(퇴기둥/평주).

3) 소로수장은 일부만 소로수장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 민:민도리, 단:단장여수장, 장:장여수장, 소:소로수장, 익: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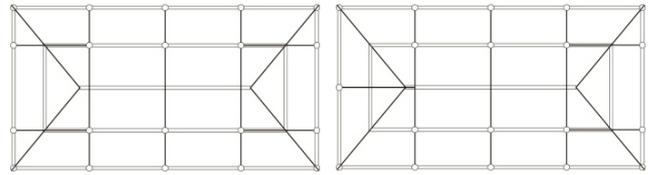
### 3. 부분공통구성의 도출

#### 3.1 가구 평면의 부분공통구성

전체 가구구성의 기반이 되는 평면상의 기둥배열은 크게 몸체와 퇴로 나눌 수 있다. <Table 4>의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가옥 몸체의 정면 칸수는 주로 3칸, 4칸, 5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4칸집이 67사례(64.4%:전체 104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5칸집이 22사례(20.7%), 3칸집이 14사례(13.5%)로 나타난다. 곧 정면칸수는 서론에서 일단 정한 바와 같이 점유율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4칸이 부분공통구성(형식)에 해당한다. 반면에 측면의 칸수는 거의 대부분이 홑집이므로<Table 3> 1칸이 부분공통형식이다. 퇴의 구성은 거의 대부분 좌우로 퇴가



a) 전퇴 - 측면 중앙기둥없음 b) 전퇴 - 측면 한쪽중앙기둥



c) 전후퇴 - 측면 중앙기둥없음 d) 전후퇴 - 측면 한쪽중앙기둥

\* 두줄 선: 도리, 굵은 선: 보/추녀, 원: 기둥

Fig. 2. Common construction of planes(Including roof construction)

붙지 않는 가운데, 전퇴집이 50사례(48.1%), 전후퇴집이 45사례(43.3%)로 나타난다. 과반수를 넘지는 않지만 두 형식이 모두 3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므로 모두 유력한 형식 곧 공통형식이다. 실내기둥은 생략하지 않는 것이 부분공통구성으로 나타난다<Table 3>.

같은 방식으로, 측면 중앙 기둥은 전혀 도입하지 않은 경우(41사례)와, 양 측면 중 한 쪽에만 도입한 경우(46사례)가 부분공통구성이 된다(양측면 모두 도입한 경우는 16사례). 측면중앙기둥이 사용된 경우 측면칸수는 표면적으로는 2칸이지만, 내부에서는 기본가구에 의한 칸이 그대로 유지되므로(측면중앙기둥을 도입한 사례 대부분이 측면 중앙기둥을 기준으로 간살이가 두 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측면1칸 간살이와 동일), 가구구성의 시각 즉, 기본기둥의 배열(그리드적 사고)이란 시각에서는 1칸/홑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후퇴집에서 측면중앙기둥의 사용은 측면 평주를 2개에서 1개로 줄인 것을 의미한다. 곧 측면가구의 간략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이상에서 부분공통형식이 복수로 나타나므로 그 조합에 의해서 평면공통구성은 모두 4종류가 구해진다. <Fig. 2>는 기본기둥배열을 중심으로 하는 평면구성의 주요 공통형식을 모식도(개념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후술하는 지붕평면구성(3.2 지붕평면가구의 부분공통구성)을 여기에 함께 표현한다. 본 연구는 가구의 구성에 한정된 연구이므로, 그 구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식도(개념도)를 사용한다.

#### 3.2 지붕평면가구의 부분공통구성

지붕가구를 평면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보, 도리(장여)의 연결 그리고 서까래와 추녀의 배열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이 중에서 보와 도리의 연결보다는 추녀와 서까래

4) 박 찬, 전남지방 전통주택 가구 구성의 공통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14권 6호(통권 52호), 2012, pp.153-162

의 배열에 의해서 지붕가구의 구성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난다. 민가 지붕가구의 평면구성 형식은 팔작구성과 우진각구성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계된 결과는 대부분 우진각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Table 3>. 한편 지붕 형태는 지붕가구의 평면구성과는 달리 팔작지붕도 적지않게 나타난다(전체 104사례 중 34사례).

곧 우진각구성의 지붕가구에 팔작지붕의 이음을 한 것으로, 이는 처음에는 우진각지붕이었으나, 지붕개량을 하면서 팔작지붕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Fig. 2>는 이와 같은 지붕평면구성의 공통형식인 우진각구성을 평면 구성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하부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부의 서까래의 배열 모습은 생략한다(이하 동일).

서까래의 사용은 단연 없이 장연 하나만을 사용한 사례가 조사 가능한 75사례 중 거의 대부분(74사례)이다 <Table 3>. 귀서까래의 배열은 역시 조사 가능한 70사례 중 서까래의 연장선의 교점이 추녀의 끝 한 점에서 형성되는 전자서까래가 2사례, 서까래의 연장선의 교점이 추녀의 끝이 아닌 다른 한 점에서 형성되는 말굽서까래(Fig. 3-a)가 35사례, 전자서까래와 말굽서까래의 혼재형인 절충형(Fig. 3-b)이 33사례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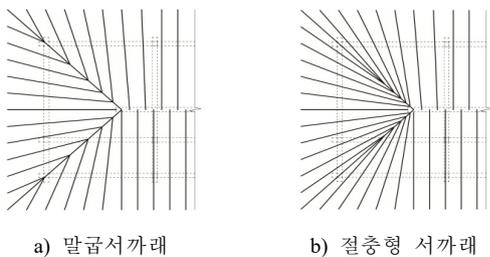


Fig. 3. Common construction of arrangement of corner raf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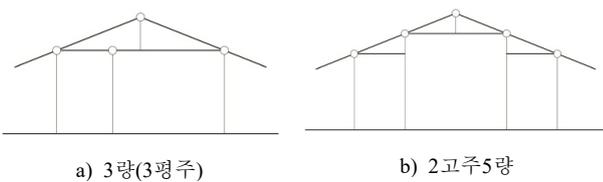


Fig. 4. Common construction of longitudinal sections

### 3.3 가구 단면의 부분공통구성

본고에서 기본가구란, 종단면 가구 중에서 특별한 가구(예. 기둥 생략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구를 말한다. 기본가구는 반복적으로 쓰이면서 종단면 가구구성의 기준이 되므로 단순하지만 구조적으로 안정된 구성을 한다. 전체 104사례 중 기본가구는 3량(3평주)이 46사례, 2고주5량이 46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퇴보의 연결은 퇴보가 고주에 수평으로 연결되는 수평퇴보형식이 대부분(91사례)이다. 이를 모식도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 3.4 횡단면 가구의 부분공통구성

가구의 횡단면구성은 기본도면 중에서 횡단면도에 주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횡단면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양쪽 측면부분에서 그 구성이 차별화되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의 가구는 사실 2차원 도법인 횡단면도가 아니라 3차원의 도법으로 표현해야만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횡단면도가 아니라 3차원의 도법에 의해서 고찰한다. 이 부분의 가구형식은 일반적으로 측면퇴칸의 유무와 중앙기둥의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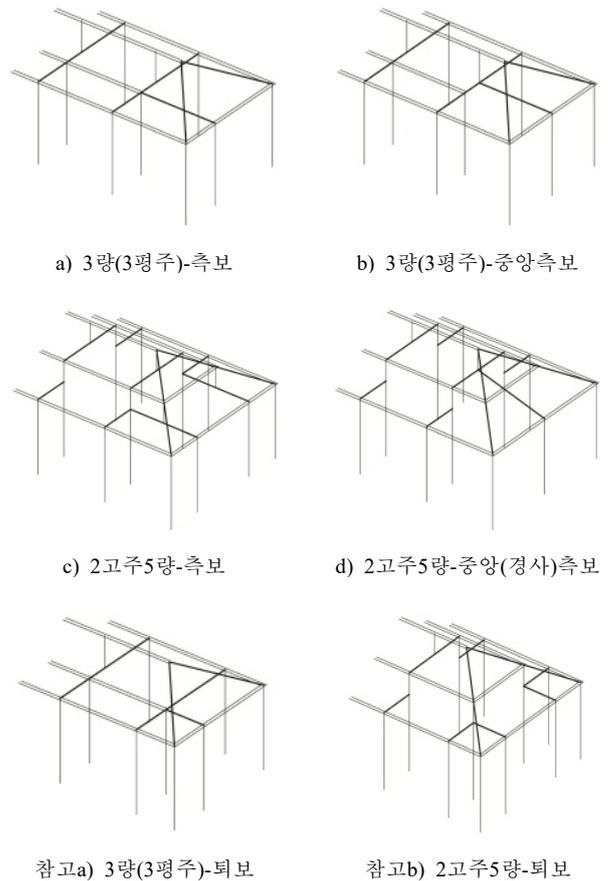


Fig. 5. Common construction of side frames

진다. 즉 측면의 처마기둥과 그 안쪽의 실내기둥과의 연결이, 측면퇴가 있는 경우는 퇴보로 연결되고(Fig. 5 참고 a, 참고b)), 없는 경우는 측보로 연결된다. 조사민가는 측면에 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측보형식(또는 측량형식)을 공통형식으로 한다<Fig. 5의 a), b), c), d)>. 그런데 측보형식 중에서도 중앙기둥을 사용한 경우는 측보가 중앙에 하나 사용되는데, 이를 통상적인 측보형식과 구분하면 ‘중앙측보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측면가구가 세부까지 확인 가능한 70사례 중에서 측보형식이 37사례, 중앙측보형식이 25사례이다. 이외에 측보가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사례가 5사례로 나타난다. 이는 모두 3량집으로 최측면의 기둥(평주: 귀기둥 제외)이 없거나, 도리와 결구하지 않고 지지하기만 하는 임시 기

5) 박 찬, 전남지방 전통주택 가구 구성의 공통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14권 6호(통권 52호), 2012, pp.153-162

등만 있고 측면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절약을 목적으로 측면보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측보형식과 중앙측보형식의 2가지 형식에 기본가구가 3량과 2고주5량의 2가지로 나누어지는 점을 반영하면, 측면부분가구의 공통형식은 모두 4가지로 도출된다<Fig. 5>. 여기서 중앙기둥을 사용한 경우, 전후퇴집에 한해서 측보가 경사로 연결되는데, 이는 가구 구성상 당연한 선택이다(‘중앙경사측보형식’).

### 3.5 기둥머리결구 및 기타세부구성의 부분공통구성

기둥머리 결구형식은 평주와 고주가 같은 결구형식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예비조사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므로 함께 조사한다(전면열 기준). 조사 가능한 100사례 중 장여수장-민도리 형식(평주-고주, 그림생략, 이하 동일)이 53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다음으로 민도리-민도리 형식이 30사례로서 각각 공통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외 단장여수장-민도리, 장여수장-장여수장, 소로수장-민도리, 소로수장-장여수장, 익공-장여수장이 소수 나타난다. 여기서, 평주/고주는 결구형식이 서로 같거나 고주의 위계가 평주보다 한 단계 낮은 구성(전면 기둥열 기준)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면열의 기둥머리 결구형식도 모두 조사 하였는데 대체로 후면열(1열 또는 2열)은 전면열의 고주와 동일 형식의 결구를 보인다(확인 가능한 45사례 중 42사례). 즉 기둥머리 결구형식의 전체적 양상은, 전열의 형식을 하나(민도리식)로 통일하거나(16사례), 최전면열 한열만 다른 세 열보다 위계가 상위인 구성(26사례)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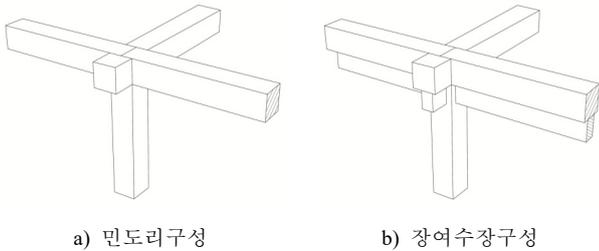


Fig. 6. Pillar upper part construction

다음으로 기타세부구성을 보면 중대공의 형식은 중도리가 없는 경우 사용하지 않고, 중도리가 있는 경우 동자주를 사용하였다. 중대공은 모두 동자주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처마의 형식은 100사례 중 훌처마가 72사례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겹처마가 28사례로 나타난다.

## 4. (전체)공통구성의 재구축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부분공통형식을 종합하여 공통형을 재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상에서 드러난 부분공통형식을 종합하면 <Table 6>과 같다. 곧 이들 부분공통형식을 모두 종합해서 재구축되는 가구 구성이 공통형이다.

이상의 부분공통형식 중에서 전체 가구 형태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기준으로 주요한 구성요소(형식)를 들어보면, 정면칸수(4칸), 서까래/추녀의 (평면)배열(우진각구성), 퇴구성(전퇴/전후퇴), 측면중앙기둥의 사용(한쪽사용/사용안함)과 측면부분의 가구(측보형식/중앙측보형식), 종단면 기본가구(3량/2고주5량),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요소에

Table 6. Reconstitution of common construction

항목		부분공통구성(형식)	
평면구성	평면형	‘一’자형	
	기본기둥	칸수*1	정면: 4칸 측면: 1칸
		배열	퇴구성 / 전후퇴
	실내기둥생략	생략 없음	
	측면중앙기둥	한쪽 / 없음	
지붕평면구성	서까래/추녀의 배열	우진각구성	
	귀서까래 배열	말굽서까래 / 절충형	
종단면구성	기본가구	3량(3평주) / 2고주5량	
	퇴보연결	수평	
	서까래 구성	장연	
횡단면구성*2	측면부분의 가구(3D)	측보형식 / 중앙측보형식	
기둥머리결구	평주-고주결구	장여수장-민도리	
기타세부구성	중대공	동자주 / 없음	
	중대공	동자주	
	처마 구성	훌처마	

1) 칸수는 퇴를 제외한 몸체만의 칸수. \*2 횡단면구성은 측면부분의 가구형식을 3차원으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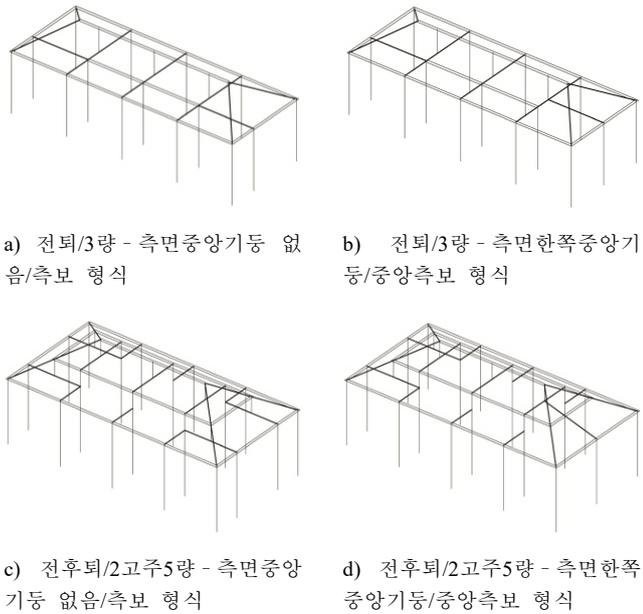
의해서 가구의 커다란 골격이 정해지고 이외의 요소는 여기에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 여기서 일부의 부분공통형식이 복수로 나타났으므로 공통형은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복수로 형성된다. 다만 전퇴인 경우는 3량(3평주)가구가 채용되고 전후퇴인 경우는 2고주5량가구가 채용되며, 또 측면중앙기둥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측보형식이, 중앙기둥이 사용된 경우는 중앙(경사)측보형식이 구성되는 등 각각 1:1의 대응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총 4가지의 경우, 곧 아래와 같이 4가지의 공통형이 도출된다.

- ① 정면4칸 - 우진각구성 - 전퇴/3량 - 중앙기둥없음/측보
- ② 정면4칸 - 우진각구성 - 전퇴/3량 - 한쪽중앙기둥/중앙측보
- ③ 정면4칸 - 우진각구성 - 전후퇴/2고주5량-중앙기둥없음/측보
- ④ 정면4칸 - 우진각구성 - 전후퇴/2고주5량-한쪽중앙기둥/중앙측보

<Fig. 7>은 이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와 같은 그림은 주요한 형식, 곧 가구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식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공통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서까래의 구성과 일부 서까래의 배열, 기둥머리결구 및 기타세부구성은 생략).

이상에서, 서론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분공통구성의

판정은 과반수이상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3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이 기준을 경계로 대부분의 항목이 점유율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음이 확인된다. 다만 정면칸수 5칸집 22사례(20.7%)의 경우와 겹처마가 28사례(28.0%)의 경우는 30% 이하의 차상위 점유율 중에서 비교적 큰 점유율을 나타낸 부분형식이다. 민가이지만 5칸집과 겹처마가 적지 아니하게 채용됐음을 알 수 있다.



\* 두줄 선: 도리, 굵은선: 보, 추녀, 가는선: 기둥, 동자주

Fig. 7. Common form of frame construction of traditional private house in Yeosu

## 5. 관련 고찰

다음은 이상과 같은 조사와 연구의 과정 중에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엄밀히는 본연구의 논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본연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참고로 고찰한다.

### 5.1 유사사례

조사민가 중에, 이상에서 재구축된 공통형과 주요한 부분공통형식(4. (전체)공통구성의 재구축“참조)이 일치하는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공통형 ②는 호명동 산186-3 가옥, 상암동 1761 가옥, 장수리 550 가옥, 공통형 ③은 월산리 537-2 가옥, 사곡리 171-2 가옥, 복산리 1224 가옥, 공통형 ④는 현천리 484 가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통형 ①은 모두 일치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1개의 부분공통구성이 차이가 나는 사례로, 복산리 1785 가옥 이외에 5동이 확인된다.6) <Fig. 8>

6) 복산리 1201-2 가옥, 옥적리 1221 가옥, 화동리 1464-1 가옥, 화동리 1254 가옥, 이목리 574 가옥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공통형은 각 사례의 부분의 함으로 존재하는 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례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가옥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멸실됐을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실현되지 않은 형일 수도 있고 추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형이다. 따라서 공통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거나 적다고 하더라도 공통형 자체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본고가 유형분류의 연구가 아니고 공통형의 도출연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Fig. 8. Similar example

### 5.2 규모별 공통구성

본고는 부분형식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모별 분석(규모와 다른 건축요소와의 상관)은 논문 전체의 맥락에 영향을 끼치는 논제는 아니다. 그러나 규모는 건축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고, 규모는 흔히 정면칸수로 대변되기도 하므로, 참고로 공통형으로 도출된 정면4칸을 중심으로, 3칸, 5칸의 경우에 부분공통형식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살펴보는 부분 공통형식은 전절-4.공통형의 재구축에서 모식도 작성에 채용한 전체 가구 형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부분공통형식을 중심으로 한다(서까래/추녀 배열은 모두 우진각구성이므로 생략).

<Table 7>에 의하면, 퇴의 구성은 3칸집은 전퇴집이 주를 이루고 5칸집은 전후퇴집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규모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같은 이유에서 좌퇴나 우퇴가 부가된 집도 3칸집과 4칸집에 비해 5칸집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본가구구성은 퇴의 구성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전퇴집의 경우 3량 형식을, 전후퇴집의 경우 2고주5량 형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 중요한 점은, 부분공통형식은 칸수에 관계없이, 곧 공통형인 4칸뿐만 아니라 3칸, 5칸 모두 해당사례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도출된 부분공통형식과 공통형

이 규모의 경계를 넘어서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Table 7. Aggregation of partial common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kan of front

		3칸	4칸	5칸	합계
가옥수		14	67	22	103
퇴의구성	전퇴	13	32	5	51
	전후퇴	0	32	12	45
	전우퇴	0	1	0	1
	전후좌퇴	0	0	2	2
	전후우퇴	0	2	2	4
	전후좌우퇴	1	0	1	2
기본가구	3량	13	29	4	46
	2고주5량	1	30	14	45
	1고주5량	0	5	0	5
	반5량	0	0	1	1
	변형반7량	0	2	0	2
	기타	0	1	3	4
측면 중앙기둥	없음	7	29	5	42
	한쪽	6	27	13	46
	양쪽	0	11	4	16
측면보의 형식	측보형식	5	22	10 <sup>1)</sup>	37
	중앙측보형식	4	20	1	25
	퇴보형식	0	0	1	1
	중앙퇴보형식	1	0	1	2
	없음	2	3	0	5

\* 부분공통형식은 굵은 자로 표기

\* 일부 개변이나 천장 설치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사례수가 동일하지는 않다.

1) 5칸에서는 측면중앙기둥이 설치되는 경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음에도 측면보의 형식에서는 중앙측보형식보다 측보형식이 더 많은 수치 곧 역전된 수치를 보인다. 이는 측면중앙기둥은 양쪽을 조사했으나 측면보의 형식은 한쪽(부엌쪽)을 조사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6. 결론

이상에서, 여수 지역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재래민가를 대상으로 가구의 구성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형식, 곧 공통형을 재구축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Table 6>과 같이 공통형이 도출되었는데, 여기에 전체 가구 형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대별된다. 일부의 부분공통형식이 복수로 나타나므로,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재구축되는 공통형은 복수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를 그림(모식도)으로 나타내면 <Fig. 7>과 같다.

- ① 정면4칸 - 우진각구성 - 전퇴/3량 - 중앙기둥없음/측보형식
- ② 정면4칸 - 우진각구성 - 전퇴/3량 - 한쪽중앙기둥/중앙측보형식
- ③ 정면4칸 - 우진각구성 - 전후퇴/2고주5량 - 중앙기둥없음/측보형식
- ④ 정면4칸 - 우진각구성 - 전후퇴/2고주5량 - 한쪽중앙기둥/중앙측보형식

이와 같이 재구축된 공통형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가옥 중에서 찾아보면, 주요한 부분공통형식이 일치하는가를 기준으로 할 때, 공통형 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통형 ②, 공통형 ③, 공통형 ④에서는 일치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의 공통형은 각 사례의 부분의 합으로 존재하는 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례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공통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거나 적다고 하더라도 공통형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본고는 부분형식이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면칸수가 건축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므로 공통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각 부분공통형식은 공통형인 4칸뿐만 아니라 3칸, 5칸에서도 모두 일치한다(해당사례수가 가장 많다). 이는 곧 도출된 부분공통형식과 공통형이 규모의 경계를 넘어서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고는 기초설계자료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여수 지역의 재래 민가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가구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설계데이터(노하우)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여기에는 여수지역(육지)에 현존하는 민가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여수 민가 가구 구성의 보편적인 형태를 구체적이고 간명하게 파악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가의 설계노하우를 문서화(문자화)하며, 한국민가의 영조규범의 일부를 지역별로 세분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본고의 공통형은 각 지역의 민가를 통합하는 영조규범과 개별 민가의 실측도면과의 사이에서 그 중간에 위치하는 설계노하우라는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본고의 결과는 여수지역 민가의 수복이나 재현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훗날 여수민가의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전승)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기초설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본고의 방법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시도가 기초설계자료를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규명하는데 방법적으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연구구성상 연구범위를 가구 구성의 공통형(공통 구성)에 한정하였다. 앞으로 가구 치수의 공통형(공통 치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규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기초설계자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아카데미, 2006, 서울
2. 박 찬, 「전남지방 전통주택 가구 구성의 공통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14권 6호(통권 52호), 2012

집수일자 : 2017. 10. 10  
수정일자 1차 : 2017. 11. 10  
제재확정일자 : 2017. 11. 21